

할렐루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주시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원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9월 28일 (토) 제 198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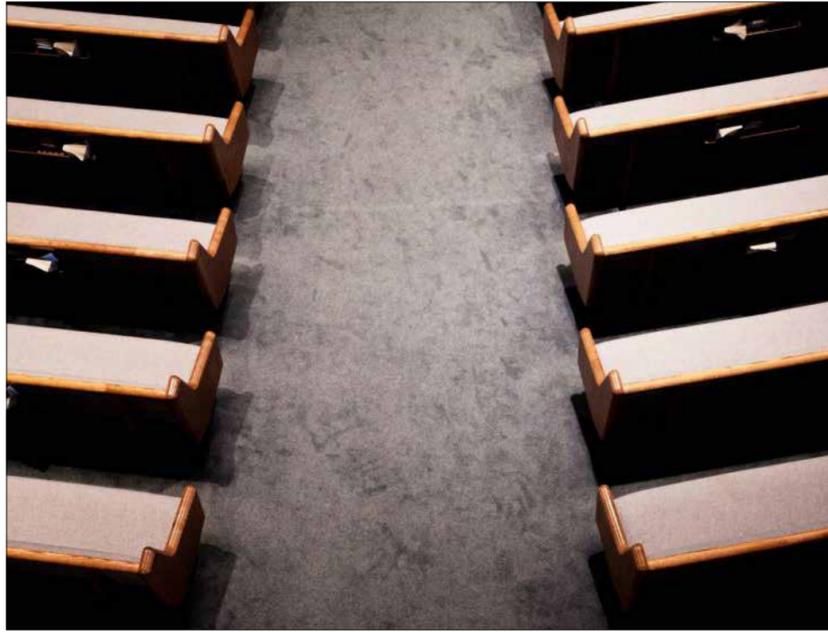
탈교회 현상에 대응하여 교회가 물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질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난 삼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그들을 향해서 미국 교회가 무언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개인과 기관이라는 두 트랙에 근거한 핵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짐 데이비스와 내가 쓴 탈기독교시대 교회(The Great Dechurching)는 교회를 떠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다. 도대체 교회를 떠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풀고, 관계의 지혜를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책을 서술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다 의미 있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려면, 또 하나 동등하게 중요한 트랙인 기관, 즉 지역 교회도 탈교회라는 문제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여는 것, 그리고 더 잘 준비된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물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1. 뒷문을 닫아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교인을 위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사했기 때문이다." 공황과 마찬가지로 이사에도 도착과 출발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다 계획이 필요하다. 더 간단한 출발 전략부터 알



아보자.

이사 가는 개인 및 가정과 출발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사 가는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 3-5곳 목록을 작성해 준다. 이사 가고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로운 교회 등록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인한다.

이런 과정이 당신의 교회에 꼭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당신은 지금 교인을 잃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교회라는 더 큰 차원에서는 교회에 도움을 준다. 다른 좋은 교회로 옮기는 교인과의 소통을 끊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탈교회라는 통계에 잡히는 교인의 숫자를 줄

일 뿐 아니라 그들이 새로 출석하는 교회까지 넓힐 수 있다.

2. 앞문을 열아라: 새로 오는 교인을 위한 프로세스가 있는가?

다음으로, "도착" 전략을 고려해 보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계속적인 진화에 발맞춰서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많다.

새 교인 초청 방법에 관해서 기존 교인을 훈련시키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35%는 초대하면 교회에 갈 것이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17%가 초대를 받는 경우에 교회에 가겠다고 응답했다.) 교인들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본을 제공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안녕하세요, 혹시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다보니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까지 들어서 말이지요."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최근에 이사 온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 우편물 발송을 돕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이렉트 메일을 보낸다.

(3면으로 계속)



참된 영성을 향한 불편한 균형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랜만에 당진에서 사역하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공세리 성당에 들렀다. 이 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고딕 성당(1922년)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건물로 알려져 있다. 아담한 건축물이지만,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성당 주변에는 330년이 넘는 팽나무들이 세 그루 넘게 서 있었다. 성당을 둘러싼 정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오솔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곳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방문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별칭을 가진 공세리 성당을 걸으며, 오래전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멜 김슨

(Mel Columcille Gerard Gibson) 이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티(The Passion of the Christ)'가 떠올랐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부활절이 다가오면 고난주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상영되곤 한다.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극도로 사실적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천주교(로마가톨릭) 신학의 핵심 사상, 즉 고통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목상이 담겨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7면 개혁주의윤리학 이길호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버클리 시온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할렐루야~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버클리시온장로교회는 25년간 개척하여 섬기셨던 신태환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및 청정만 목사의 제2대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클리시온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일시 2024년 10월 1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버클리시온장로교회 예배당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530

신태환 목사 청정만 목사

버클리시온장로교회 | <https://berkeleyzionpc.com> | (510)912-1955
Berkeley Zio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신태환 |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530

제26회 홀사모 돕기

▷ 2024. 10.13(주일) 6pm
▷ 버클리 시온장로교회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530
▷ 신청문의 berkeleyzionchurch@gmail.com
또는 신태환 목사 (510-912-1955)

사랑의 성가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버클리 시온장로교회에서는 올해에도 홀사모 돕기를 진행합니다. 취지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홀로 된 65세 이하의 사모님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며, 올해도 아주 의미 깊은 이 사역에 여러분의 참여로 몰심양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홀로 남은 교역자의 사모를 홀사모라고 이릅니다. 고인이 된 남편 목사님의 뒤를 잇지도 못하고, 험난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전공공하고 있는 홀로 된 사모들은 생활비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겨우 잡은 직장에서 내몰려야 하는 등 세상 밖으로 내쳐진 사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미국 한인교회의 홀사모 지원 대책은 미비하며, 조국 한국교회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사역에 훌륭히 동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홀사모는 우리의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적절히 쓰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 속에 일차적인 문제로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이 향해야 할 곳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랑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29)

주최 버클리시온장로교회
Berkeley Zion Presbyterian Church

주소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530

문의 담임목사 신태환 (510)912-1955

시론

“하나님의 댐퍼보이”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1995년 6월 29일 정확하게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 937명, 6명은 실종. 선교지에서 이 사건의 보도를 접하고는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와 아주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주 찾았던 백화점인데다가 백화점이 무너진 바로 그 시간 어간에 그곳을 찾은 적이 몇 번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나가 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 피해의 당사자였을 수 있다. 더군다나 그 백화점은 당시 가장 최근에 지어졌기에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넘쳤었다. 핑크빛과 강한 코발트색의 대비로 건물 색깔부터 부티가 흐르는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허물어질 수 있던 말인가!

그 백화점의 붕괴 이유는 한 마디로 잘못된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 원래 지하 4층, 지상 4층의 건물이었었는데 완공 직전에 용도를 변경하여 지상 5층으로 둔갑시켰다. 또한 더욱 많은 점포들을 들이기 위해 건물의 하중을 견디게 하는 장치 중 하나인 벽들을 많이 없애 버렸다. 게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래의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사용하였고 심지어 L자 철근을 써야 할 곳에 1자 철근을 썼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물을 짓는 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견고하고 영구적인 재료로 짓는 자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약하고 일시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다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집들은 외적으로 비슷해 보이거나 어찌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차이는 마지막 날 불 시험에서 드러난다. 영구적인 재료로 집을 짓는 자의 집은 그대로 있지만 일시적인 재료로 지은 집은 불타고 만다. 기껏 일생을 공들여 지은 집이 심판의 날에 다 불타 버린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재료의 차이다. 즉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는가가 이 비유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재료로 지었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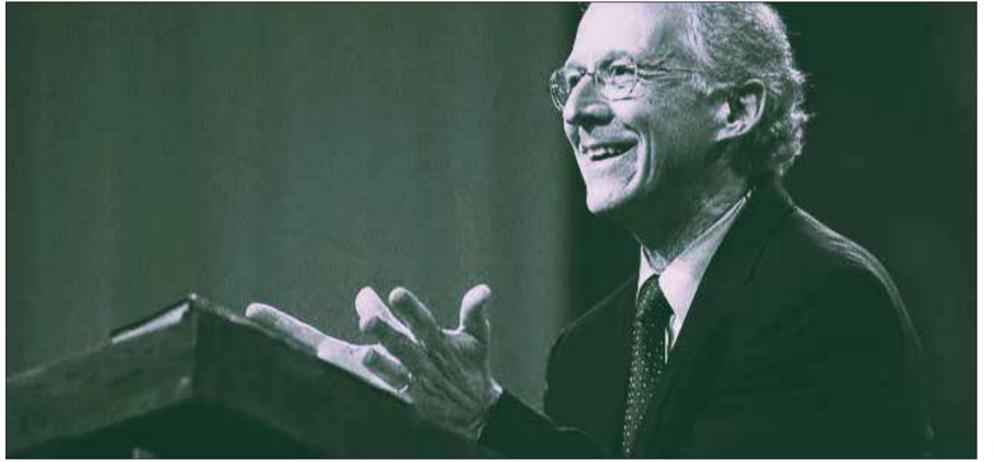
트리나 포올러스의 그림책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이야기. 줄무늬 애벌레가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높은 기둥을 바쁘게 오르는 애벌레 무리를 만나 자신도 뭔가 꼭대기에 오르면 분명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 있을 거라 여기고 무작정 올라간다. 그 기둥에서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기어오르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오로지 그것만이 문제였다. 그런데 수많은 애벌레들을 밟고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 허망함이란... 줄무늬 애벌레의 행복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나비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내 방식의 헌신을 기뻐하시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면서 거룩한 거울이다. 말씀이라는 거울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공들여 쌓는 빌딩이 마지막 날에 불타 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가슴으로 새겨야 한다.

올해 4월 대만에 7.2강도의 대지진이 있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지하 5층, 지상 101층의 <타이페이 101>은 끄떡없었다. 2004년 건축할 당시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딩이 안전을 유지한 비결은 그 빌딩의 87-92층 사이에 있는 댐퍼보이라는 구체(具體) 때문이다. 댐퍼란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엄청난 두께의 강철을 잘라서 공 모양으로 붙여놓은 것이 댐퍼보이다. 이것의 무게는 자그마치 660톤, 92개의 케이블로 건물 안에 매달아 놓았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리면 댐퍼보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극한의 지진을 견딘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댐퍼보이가 필요하다. 제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와 같은 말씀 위에 선 섬김과 봉사여야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도 불타지 않으리라.

minkyungjob@gmail.com

설교자의 열정, 존 파이퍼에게서 배우다

거짓 열정은 죽이고 진정한 열정은 살려야 한다



파이퍼는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자다. 나는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파이퍼가 설교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그의 질서정연한 논리는 열정적인 목소리와 적절한 몸짓으로 복음의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아주 능숙하고 진지하고 기뻐하는 탁월한 설교자의 모습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솔직히 그런 설교를 처음 접했다. 그러나 파이퍼는 타고난 언변가는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심각한 생리적, 심리적 무능력인 마비 증세를 앓았다. 하나님은 파이퍼의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 증세를 대학교 때 고쳐 주셨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언변과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의 책,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에서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고자 한다.

파이퍼는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자다. 나는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파이퍼가 설교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그의 질서정연한 논리는 열정적인 목소리와 적절한 몸짓으로 복음의 영광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아주 능숙하고 진지하고 기뻐하는 탁월한 설교자의 모습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솔직히 그런 설교를 처음 접했다. 그러나 파이퍼는 타고난 언변가는 아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심각한 생리적, 심리적 무능력인 마비 증세를 앓았다. 하나님은 파이퍼의 두려움으로 인한 마비 증세를 대학교 때 고쳐 주셨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언변과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의 책,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에서 밝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고자 한다.

3. 진리가 불러일으키는 열정을 개발하기

우리는 자신이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 파이퍼의 말을 들어보자.

설교자의 몸짓과 어조와 태도는 본문의 어조와 내용과 그 순간의 정신에 맞게 하는 겁니다. ... 성경은 매우 많은 종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 본문이 외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나 태도가 거세게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본문이 슬픔을 말하는 데 여러분의 태도가 쾌활하지 않게 하십시오.

파이퍼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다. 객관적 진리에서 표출되는 주관적인 열정, 그에 걸맞은 음성과 음량을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개발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의 지성을 진리로 채워야 한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 그 진리의 실재에 상응하는 열정이 나올 때까지 성경에 폭 젖어 들어야 한다. 성경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성경에 나타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경에 나타난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까지 진리의 실체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파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사역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지는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9면으로 계속)

1. 파이퍼의 '열정의 모델':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윌필드, 존 파이퍼

나는 파이퍼의 열정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이퍼는 탁월하게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 시대에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이퍼는 에드워즈의 강렬함, 논증의 무게, 연속하게 깊이 배어 있는 정신, 경건 능력에서 풍기는 향취, 영혼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 설교의 진지함과 즐거움을 배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에드워즈와 파이퍼가 열정을 드러내

2. 거짓 열정과 진정한 열정 구분하기

열정 없이 설교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열정적이고 흥분을 잘 하거나 작은 일에도 감동을 잘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각 사람의 개성에 알맞게 빚으셔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있는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정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 거짓 열정은 죽이고 진정한 열정은 살려야 한다. 그럴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갈 수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패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탈교회 현상에 대응하여 교회가...

(1면에서 계속)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TGC, 9Marks, PCA, SBC, ACNA, Acts 29와 같은 다양한 교회 검색 엔진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라.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그 동네에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점검하라. 특히 처음 접속한 사람에게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라.

3. 준비된 제자를 내보내라: 교인이 일상에서 영적 대화 내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교인을 준비시키는 건 교회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특히 기독교가 퇴보적이거나 심지어 억압적이라고 까지 여기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은 더 심화되었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

영적이고 복음적인 대화를 위한 교인 훈련의 현 계획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지역 사회 전도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 교회에서 세례를 준 제1세대 교인(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한다.

지역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위상은 무엇인가? 그 위상에 내재된 근본적인 욕구와 두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건드릴 복음에 관한 은유는 무엇일까? 어떤 상황 또는 어떤 공동체가 복음에 가장 호의적으로 반응하는가?

신앙과 직장의 통합에 대한 훈련을 주최한다.

우리는 지역 교회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스무 개의 무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TGC25 컨퍼런스의 분과 세션, "탈교회인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등록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교회화(rechurching toolkit)을 제공한다.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태만한 종이라 책망받을 것이다.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부흥을 위한 각종 모범 사례를 모으고 최고의 시스템과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직접 바람을 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 제안한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성례전으로 꾸준히 양들을 먹일 때 만 의미가 있다.

by Michael Graham, TGC

목회단상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탄광의 카나리아

카나리아는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가 원산지인 새입니다. 노란 깃털을 가지고 있고, 노랫소리가 아름다워 감상용으로도 많이 길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가 어울리지 않는 탄광에 출현한 것은 19세기 유럽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둠과 더위 좁은 갱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탄광의 노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욱 위험한 것은 벽에서 스며 나오는 유독 가스였습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토끼나 쥐처럼 작은 온혈동물이 유독 가스를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가면서 쥐를 데리고 광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산화탄소에 훨씬 더 민감한 카나리아로 바뀌었습니다. 갱대에 앉아있던 카나리아가 새장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 광부들이 갱도를 신속하게 탈출할 시간이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는 다가온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탄광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에 죽거나 다치는 일을 피하고자 광부들이 유독 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갱도로 내려간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로 인해 많은 광부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듯이 언제 닥쳐올지 모를 죽음을 망각한 채,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올 최후 심판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는 복음의 사신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전염병과 전쟁과 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연 재해를 목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마세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최후 심판을 부정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생명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전 3:7-10). 우리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복음의 카나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cefyeo@hanmail.net

참된 영성을 향한 불편한 균형

(1면에서 계속)

천주교 신학에서는 사랑(은혜)의 열매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랑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양분인 순종이 필수적이다. 이 양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종인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곧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는 것을 뜻하기에, 천주교 영성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을 순종의 극치로 여긴다. 예를 들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오상(五傷: 손과 발, 옆구리에 난 다섯 개의 상처)의 고통을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imitatio)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conformitas)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천주교에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영성가들이 4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천주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더 큰 순종과 선행으로 간주한다. 당연히 천주교에서는 사랑의 열매인 구원을 이러한 고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들도 동일하게 당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고통이라는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따를 최고의 순종의 삶으로 가르치셨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천주교 신학에 따르면, 부활이라는 궁극적 구원을 위해 성도 개개인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 하고, 그 길의 절정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와 그 고통과 죽음(순교)은 부활(구원)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천주교의 구원론과 신학적 관점을 통해 보니, 내가 방문한 공세리 성당에 걸린 그림들과 스테인드글라스, 성

당을 둘러싼 십자가의 길을 장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난 조각들이 더 깊이 이해되었다. 한국에 초기에 세워진 성당들 대부분이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들을 목상하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반면, 개신교는 엄숙하고 고통을 목상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개신교의 균형을 좋아하고 옳다고 믿지만, 현대의 개신교는 너무 가볍고 고통의 정반대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 인생이 단순히 고통과 행복만으로 이분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나이가 들수록 깊어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는 엄숙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술과 담배, 나이트클럽을 허용해 왔다. 오래전 천주교 신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청년부 MT로 속초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갔고, 젊은 신부님도 함께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로마가톨릭 내에서도 오랫동안 있어 왔다. 공식적으로 난잡한 카니발을 허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찰스 테일러 같은 세속화 연구자들은 카니발 문화를 일종의 '포치(porch)' 문화라고 말한다. 포치란 길과 집 사이의 중립적인 공간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곳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라 여기는 영성과 세속적인 일상 사이에 위치한 중립의 영역에서 일탈을 허용하고 즐기게 하는 공간이 카니발인 것이다. 일종의 세속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요즘 불교에서 '뉴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개그맨이 클럽에서나 할 법한 디제잉을 하고, 이를 조계종 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을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엄숙주의와 고통,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일상의 율리와 문화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룩과 속세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구원을 위한 길이 없고 세속의 도덕은 상대적이며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오직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에서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결국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면서, 교회나 사찰에 와서 속죄 의식이나 백팔배를 하고, 헌금과 시주를 통해 성직자가 대신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구조를 만든다. 신도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성직자의 생활을 돕고, 대신 그들이 기도하게 하는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사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한국의 무속과 불교를 통해 한국인들의 종교성에 깊게 뿌리 내려 있다.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목사들은 영매처럼 행동하며 신도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최근 천주교의 영성을 찬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이것이 마치 오래 감추어진 진정한 기독교 영성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에서 개혁을 부르짖으며 개신교회를 만들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었다. 이는 기독교의 성과 속의 이분법을 벗어나 이를 통합하는 참된 영성을 되찾기 위한 선제 조건이었다.

끝으로, 공세리 성당에 들어서며 이 공간이 주는 분리감과 거룩함에 놀랐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경계가 지닌 위험성을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들의 불편한 균형은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깨닫는다. 요즘 개신교회에서도 이러한 분명한 경계를 통한 거룩함과 영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by 이춘성, TGC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NY, NJ, Hawaii, and Mexico.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밥심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요즘은 밥보다는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다고 하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혈당과 비만 등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서 절제하려고 노력하지

만 그래도 밥을 끊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매일 밥을 먹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쌀로 죽을 쑤어서 먹습니다. 산모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고, 소풍갈 때는 ‘김밥’을 싸고, 라면국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지막 코스는 언제나 남은 국물에 달걀 풀고, 김 가루 넣어 볶은 ‘밥’을 먹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합니다.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뎀다.” “그 나물에 그 밥” “한 술 밥에 배부르랴” 불편한 감정을 표현 할 때는, “진짜 밥맛없는 놈” “저 사람과는 같이 밥 먹기도 싫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친구와의 우정을 표현 할 때는, “밥은 먹고 다녀?”, “우리 한 술 밥 먹는 사이”, “언제 밥 한번 먹자”,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밥 먹고 가라”,

그렇다면 크리스천들도 밥심으로 살까요? 성경은 “사람이 떡(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 4:4)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고, 매일 먹어야 할 영적인 ‘밥’입니다. 우리는 매

일 영적인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여야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강도 높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어떤 고난도 감당할 영적인 맺집이 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탈이 나지도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내 삶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축복이 넘칩니다.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

고 새 힘이 넘칩니다. 영적 배부름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한국인들이 안부를 물을 때 “밥 먹었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하듯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셨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강권하세요”

“시간 없어도 말씀을 꼭 챙겨 드세요” “우리 언제 만나서 같이 말씀을 먹고 나누어요.”라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라”(시 107:9)

푸/른/초/장

한세영 목사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평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shalom"의 뜻은 완전함인데, 이 단어가 육신에 쓰일 때는 건강을 의미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풍년을 의미하며,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전쟁과 환란이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늘 이러한 주님의 "shalom"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천사나 선지자를 통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전달하신 유일한 사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사와 선지자들을

진리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는 본문 3:7-4:13에서는, 모세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예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지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순

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였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 편에서도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염려나, 근심거리나, 유혹이나 시험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목하다. 주의깊게 살피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오직 예수만을 주목하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결코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뚫어지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성품은 어떠한지,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따라야 할 삶은 무엇이며,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도는 그 삶이 오직 예수께

님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지는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용서가 힘들어도 예수만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용납이 안 되고, 힘들어도, 결국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을 생각함으로,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릴 시험하고 유혹하더라도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포기하지 말고, 설령 포기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다!)”(고후 4:8-10)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난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하자”

히브리서 3:1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들도 믿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구약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예수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버려서는 안 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올바르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함으로 오직 그분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표현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일까요?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의 독특함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누구니까? 인간의 모든 제사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쁨부어 세우신 유일한 중제자인데, 라틴어로는 Pontifex ‘교랑을 세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문제 해결의 올바른 실마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시작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2장 18절을 받고 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앞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천사나 모세나 다른 것 볼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험 중에 능히 도우시는 참된 위로자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사도요, 참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집중된 시선으로 무엇이든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단지 기록된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며 따르거나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으셨죠? 그리고 용서하셨죠? 자신이 대신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벧전 2:19)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는 누굴 생각하며, 하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고, 변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시선을 돌릴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14:31)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다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본다면, 그것이 적은 믿음이고, 나를 세상의 유혹 속으로 빠뜨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만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유혹과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소원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syhan91@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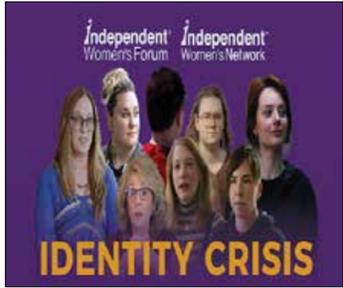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랜스젠더의 Heaven으로 바뀌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가 학부모를 속이는 것을 합법화할 때 일어나는 파괴적인 결과 초래 사례들 - 상-

캘리포니아는 수년 동안 자녀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킬 "학부모의 권리 Parental Rights"를 지켜나가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고, 오늘은 사회적 성전환부터 시작하여 의학적 육체적 성전환 트랜스젠더가 되었다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후회에 고통받는 바로 우리 가까이 살고있는 실제 십 대 자녀들의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트랜스젠더 정체성 (trans-identity)"을 외치는 학생들마저도 진실을 대하게 될 때, 자신들이 외치던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사실상 그렇게 태어난 것도(born this way), 그런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도(based on feelings), 영구한 것(infinite)이 절대 아니며, 십 대를 벗어나면, 대부분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착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그런 상황을 거쳐 간 detransitioners(트랜스젠더로 성별을 바꿨다가 다시 자신의 성별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변화 속에서 G는 엄마 Sue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하며 그녀의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이 왜 그랬는지 예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 Sue는 즉시 딸 G를 카이저의 젠더 클리닉으로 데려가 젠더 전문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의사는 딸하고만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머니를 방에서 나가게 한 상태에서, 12세 딸인 G에게 상담 의사는 여러 질문이나 다른 설명 없이, 그녀가 정체성 혼돈이 있다고 말 한마디에, "진짜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호르몬 치료(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와 트랜스가 되는 성전환 (Sex Change)수술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엄마인 Sue는 학교의 요청대로, 딸인 G가 "사회적 전환(Social Transition)"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학교도 G의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제 치료에 전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사실 학교가 추구하는 바이기에, 학교가 딸에게 모든 젠더/정체성 상담을 비롯한 트랜스젠더(성전환)하는 경우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단체에서는 절대로... 절대로... 학교가 자녀들을 "사회적 전환" 그리고 그 어떤 전환 상담을 받지 못하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육신적 상처를 크게 받을 뿐 아니라 그 상처는 치료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상태를 거친 detransitioners 들의 이야기)

그렇게 2년 반 동안 엄마 Sue는 딸 G의 "사회적, 의학적 전환 Social, Medical Transition"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생각과 다른 결과물에 자해를 시작하는 어린 미성년자들.....

하지만 G가 학교에서 그동안 배웠고 생각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G의 정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딸 G는 자해를 시작했고 자살 충동과 경계성 거식증에 시달렸으며 정신병원까지 들락거렸습니다.

자녀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STOP 시키자, 학생 엄마와 학생을 CPS에 신고한 학교!

엄마는 캘리포니아 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타 주 정신과 의사에게 의논한 결과, 의사는 딸 G의 고통은 '정체성' 문제가 아닌, "다른 정신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조언하자, 그 말을 들은 엄마, Sue는 당장에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중단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성전환 호르몬 Therapy 등 모든 것들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후 엄마 Sue는 딸 G의 공립학교에 연락하여 직원들에게 모든 상담 들을 중단하고 딸을 남자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학교 상담사는 분노하여 학생 엄마 Sue와 정신과 의사의 지시 따르기를 거부하고 아동보호국("CPS")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TVNEXT.org 에서 읽으세요.

그 후, 딸로부터 상담 의사가 결정한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한 엄마 Sue는 클리닉에 확인 질문을 하러 왔는데, 상담 의사가 엄마 Sue에게 준 딸 G의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죽은 딸을 안고 싶든지, 살아있는 아들을 감사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요.

겨우 12세이던 딸의 성 정체성 혼돈에 대한 다른 치료 옵션은 제공되지 않았습 니다.

검에 질린 엄마 Sue는 젠더 클리닉의 조언에 따라 딸에게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를 투여해달라고, 또한 필요한 호르몬 치료들을 해달라고 수궁할 수밖에 없었지요. Sue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하길, "오로지 딸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밖에 없었다"라고요.

CNN 같은 주류 언론들과 미디어들이 부모들을 성전환하려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트랜스포비아(혐오자) 또는 편협자라고 거짓 뉴스나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달리 진실은, 부모들이 성 정체성의 혼돈을 가진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확히 보여주는 케이스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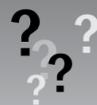
특별히, 저희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와 함께 동역하는 미국 단체들과 친구들의 개인적인 사례들만 봐도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정책들이 얼마나 십 대와 아동들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십 대들의 정체성 혼돈이 얼마나 순간적 감정일뿐일 수 있는지, 분명한 패턴을 통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가지씩 실제 사례를 나눌 텐데, 아직까지 회복 중인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줄이거나 닉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엄마인 Sue(수)와 지금은 성인이 된 딸 G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G가 12살에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G는 점점 밝은 톤 옷에서 어둡고 큰 옷을 입기 시작했고, 본래의 쾌활한 성격에서 불안한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더 나아가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결혼한 지 4년 차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최근에 생각지 못했던 아이가 생겨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하나 있고 최근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되어 남편은 유산시키자고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천으로 아이를 유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오렌지 카운티에서 변집사

낙태에 대한 태도

A: 낙태 문화는 한국과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대립하는 일치를 보기 힘든 윤리적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60만명이 태어나지만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15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틴-에이저(Teenager)들만 1년에 100만명이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낙태에 대한 견해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낙태는 임신한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소위 선택권 우선론 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Pro-Choice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인 태아는 무조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권 우선론자 영어로 Pro-Life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태아의 신분(Status)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단순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초기 태아는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간 생명인 뿐 인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낙태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뇌가 조성이 되고 최소한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기준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 뇌의 생성기간인 8주-10주 이전 단계에서는 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때의 낙태는 윤리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태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태에 형성된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간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생명의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 139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1절)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 직하셨으며(13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16절)"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태어나기 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에게 동일한 인칭 대명사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낙태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며 죄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공 유산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낙태 천국입니다. 낙태는 태아에 대한 경시 현상과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언제나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추천도서 7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3페이지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마감은 2024년 10월 31일(오후5시)(미 서부시간 기준)
 -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4. 심사: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타데우스 윌리엄스, 두란노)
-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웨이버, 온종석역)
- 일상의 유혹 (손성찬, 토기장미)
-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 시대를 읽다 성경을 읽다 (박영호, 복있는사람)
- 생명언어로 가는 일상의 성화 (이인미, 시시콜)
- 특별한 빛을 보내오신 사람들 (김기석, 도서출판 KMC)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저널(사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구입처 미주내 기독교 서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회와 선교

이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교회들이여, 해야 할 전투를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위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요일 5:19)에 맞서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자신의 몸인 교회는 단 순히 건물이나 조직의 성격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부름받은 영적 군대다.

그런데 적지 않은 현대교회들이 성경에 기초한 교회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육적인 혈투

를 불사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전투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를 위한 사탄에 의해 철저하게 휘둘림 당하는 더러운 전투가 되어 버린다.

만약 당신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인이라면 당신이 고

용한 사람이 당신이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라. 만약 당신이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주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 주인이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고용한 분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신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는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상황을 겪는 것을 더 이상 고난이라고 비유하지 말라.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멧

가이다. 이제라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를 성경의 조명을 따라 계시된 성경말씀을 대면해 보라.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조명을 따라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심정으로 대면해 보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에 가 계신가를 주목하라. 그것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가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에 부름받은 영적 군대다. 그런데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에 부름받은 교회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세미나들과 집회들에 시선을 분산하고 현혹되게 하여서 그 이상은 볼 수 없게 한다. 그 결과로 목회자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활동하는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는지 똑바로 직시해 보자. 마태복을 28장 19절과 20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들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비전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전도(Evangelism)와 양육(Nurturing)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전도와 양육에 힘쓰다가 겪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난을 흠모해 보면 어떨까? 교회들이여, 보다 전투적으로 전도하라!!! 교회들이여, 보다 전투적으로 양육하라!!!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 세우신 중대한 사명이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플라스틱 재활용은 허구”... 캘리포니아주, 엑손모빌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3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이자 플라스틱 제조사인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록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엑손모빌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 간 대중을 기만했다”며 “이들은 천문학적 수익을 위해 지구와 인류의 건강을 대가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기후무결성센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수천 가지에 달하는 플라스틱의 유형별 분류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분류에 성공해도 착색제 및 화학 첨가제 등이 들어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엑손모빌은 즉각 성명을 내 “캘리포니아는 재활용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무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우리는 6000만 파운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료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주정부가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SJ은 엑손모빌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을 기만한 혐의로 미국 전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보안이 강점이던 텔레그램 “범죄 수사에 사용자 정보 제공할 것”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로 유명한 SNS 플랫폼인 텔레그램이 앞으로 범죄 수사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했다”며 “정당한 법적 요청에 대응해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각국 정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며,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보 요청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그램이 “정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마케팅하면서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반정부 세력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 만 마약, 아동 포르노, 테러 등 각종 범죄 콘텐츠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두로프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수 주간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 없앴다면서 사용자들에게 불법 콘텐츠 신고도 요청했다.

텔레그램의 이번 정책 변경은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지 한 달만에 나온 것이다. 두로프는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후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이스라엘, 레바논에 용단 폭격... 사망자 500명 육박

이스라엘군(IDF)이 23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어 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 당국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최소 1654명이다. 이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피라스 아비야드 레바논 보건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공격받은 지역에서 수천명이 피난을 갔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무선호출기(빠빠)·무전기 폭발 사건 발생 전까지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레바논 사망자는 민간인 100명을 포함해 600명 정도다. 지난 11개월간 사망자 수에 육박하는 피해가 이날 하루 만에 발생한 셈이다. 레바논 보건 당국은 이날 남부와 동부 병원에 비닐 수술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폭격으로 인한 부상자를 우선 치료하기 위해서다. 교육 당국은 국경지대를 포함해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지역에 24일까지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다.

IDF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와 동부에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을 퍼부어 헤즈볼라 시설 1100곳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IDF의 공격 대상에는 헤즈볼라가 로켓과 미사일, 드론 등을 숨긴 건물과 테러 시설이 포함됐다.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국경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바알베크 등지에서도 IDF의 공습 장면이 목격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는데도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내각회의에서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힘의 균형, 안보의 균형을 바꾸겠다고 약속하

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IDF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加里 소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레바논 전역에 뿌리박힌 테러 목표물을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타격하겠다. 이번 공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헤즈볼라가 은신한 건물과 가옥 근처에 있는 사람은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IDF는 이날 저녁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인 알리 카라키를 겨냥한 표적 공습도 감행했다. 그러나 카라키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현재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 방산 기업 라파엘을 비롯한 3곳에 로켓포를 발사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지전 수준에서 이뤄지던 양측의 무력충돌은 지난 17~18일 뼈빠·무전기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가 큰 피해를 본 뒤 격화하고 있다. 헤즈볼라가 이 사건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보복을 천명하자 이스라엘은 지난 20일 베이루트를 표적 공습, 이브라힘 아킬 등 헤즈볼라 지휘관들을 살해하고 남부·동부 등지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6살 때 유괴된 미국 소년, 70년 만에 가족 상봉

미국에서 여섯 살 때 유괴를 당해 불법 입양된 남성이 70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루이스 아르만도 알비노는 지난 6월 온라인 조상 찾기 검사와 경찰,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으로 오를랜드에 사는 가족들을 73년 만에 만났다.



푸에르토리코 태생인 알비노는 지난 1951년 2월 21일 형인 로저 알비노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오를랜드시 웨스트 오를랜드의 한 공원에 있다가 사탕을 사주겠다는 유괴범에 속아 가족과 생이별했다. 알비노는 유괴된 이후 동부지역에 사는 한 부부의 아들로 살았다. 수십 년간 가족과 생이별한 알비노는 그의 조카딸인 알리다 알레킨(63)이 2020년 재미 삼아 받은 온라인 DNA 검사 덕에 가족을 되찾았다.

알레킨은 자신의 유전자와 22%나 일치하는 남자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에 외삼촌 찾기에 나섰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오를랜드 공공도서관에서 알비노의 사진이 실린 예전 신문 기사를 확인했고 이를 오를랜드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알비노 실종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며 알비노와 알레킨 어머니의 DNA 검사 등을 통해 알비노가 실종됐던 아이임을 확인했다.

알비노는 지난 6월 24일 FBI의 지원으로 오를랜드를 찾아 여동생과 형을 만났다. 동생이 실종된 뒤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형은 동생을 찾은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알레킨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며 “삼촌은 70년 넘게 실종됐었지만, 항상 가족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머스크 “바르면 4년 뒤... 화성에 최초로 사람 보낼 것”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2일 자신의 엑스

(X)를 통해 “2년 안에 5대의 무인 스타십(Starship)을 화성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십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다. 머스크는 또한 2년 내 발사하는 다섯 대의 무인 우주선이 모두 무사히 착륙한다면, 4년 뒤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5년 내로 무인 스타십이 화성에 도달하고, 7년 안에 인류가 처음 화성에 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보다 계획을 3년 앞당긴 셈이다. 다만 연구에 차질이 생기면 계획은 2년 더 미뤄질 수 있다. 화성 탐사는 탐사선이 최단 경로로 화성에 갈 수 있도록 지구와 화성이 일직선이 되는 때에 맞추는데, 이 주기가 26개월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이런 탐사주기)과제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화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했다. 스타십은 지난 6월 4번째 시험비행 만에 지구 궤도를 비행한 후 폭발 없이 귀환에 성공하면서 화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는 스타십이 2020년대 후반까지 달에 사람과 화물을 보낼 수 있는 대형 다목적 차세대 우주선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 비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스크도 이날 “스페이스X는 착륙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우주 여행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적었다. 과거 그는 화성 탐사 이유에 대해 인류가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을 찾지 못한다면 공멸처럼 멸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日 “러 초계기, 영공 3차례 침범... 플레이어 첫 발사”

일본 정부는 23일 러시아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1~3시쯤 러시아군 초계기 IL-38 한 대가 홋카이도 서쪽 동해에 있는 레반도 인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매우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이어’를 발사했다. 일본 당국이 영공 침범에 대응해 플레이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플레이어 발사는 경고 조치로 사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전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2일에도 러시아군 Tu-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듯 비행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 한 대가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자 중국 본토 쪽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Those Who Rejected Jesus)

고향을 찾은 예수님(Jesus Went to His Hometown)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 13:54상) 고향을 찾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어머니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향은 뿌리와 같습니다. 고향은 부모님이 계시고, 선조들의 산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향살이가 고달플 때, 이민 생활이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목수였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은 야벳 요셉을 들먹이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마 13:55,56) 고향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실수, 부끄러운 이야기,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저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까? 사회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란 마치 저울추가 중심점에 있지 않고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해 본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고향 사람들이 이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가장 번성할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민정 사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서민의 모습을 하고 서민들이 사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허튼한 옷을 입고 비를 맞은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여왕은 어느 집 처마에 뛰어 들어가서 소나기를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남루한 여자가 자기 집 처마에 와서 비를 피하고 우산을 하나 빌려 달라고 하니깐 집주인이 천한 여자라고 알고 자기 집에 있는 살도 다 부러진 너털너털한 우산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 날, 어떤 사람이 빌려 갔던 우산을 가져다주면서 "어제 우산을 빌려 갔던 분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집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아 뽀새! 오마이 갓! 팔자를 고칠 뻔했는데..." 탄식하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의 어리석은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좁쌀만 한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충만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3)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달 모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떠난 후 대여섯 명이 남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남성이 50대 여성들에게 진지하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60대에 들어설 경우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보야 하는데 그 때가 되면 재혼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로 시작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신이 변했었던 이유는 법적 거주권의 미비로 정부의 노후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는 여성들에 대해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틈나는 대로 참가했었기에 사랑스런 동생 같아서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 여성은 앞날에 대한 염려로 밤을 하얗게 새웠노라고 했고, 다른 한 분은, 딸이 내년이면 18세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 애들 아빠에게서 오던 양육비가 끊길 것이고 집세를 내기가 버겁게 되니 집을 비우고 멀리 선교지로 떠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들 뒷바라지만으로도 버거워했던 만큼 과연 선교지에 가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의 보살핌과 도움이 가끔이라도 필요할 때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외에도 자녀가 없는 한 여성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자리를 밀리게 되어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직장에서 늦은 저녁에 내일 오지 말라는 연락이 올 뿐 아니라 일찍 퇴근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터라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다시 몇 분과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멤버는, 싱글들의 만남을 돕는, 꽤 알려진 TV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만남을 우선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흐름과는 거리가 먼듯해서 시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혼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도움을 기대하고 재혼을 했다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재혼을 고려해 보아야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나게 된다면 실패율이 높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제기된 의견은 시간이 걸리게 될지라도, 한부모 여성들의 재정적인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직업학교 수료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리건 결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이끌리듯이 성경 한 구절에 눈이 고정됐는데 놀랍게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여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마태 12:20)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전 공동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편 23:4)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Each cell includes a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details like phone and email.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저는 길이 보이지 않던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기에 길을 찾아 무던히도 애를 쓰며 현실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가는 그 길이 제게는 없던 적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그냥 지나쳐 왔다면 결코 오늘에 이를 수 없던 저였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달리

다 보니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목회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혹 목사직을 가깝게 보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나 제겐 너무나 소중한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직책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혹여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방향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인생 신앙 간증을 드리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높이 드리고 널리 알려 드려서 당신이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 길이 있다고 밝히고 증명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이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내가 만나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거의 없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걸림된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가나 혼인 잔치집의 걸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

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교회에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기에 교회는 신비로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시골 유서 깊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세계관 인생관 미래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많이 세우려 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의 삶속에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성은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과목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벅차고 갑갑하고 길이 없어 보일지 모르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면 놀라운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자동차에 먼저 개스를 채워야 하듯,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은 물론 사명자들은 반드시 먼저 성령의 충만으로 영적 탱크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길을 찾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주최 제23회 창작성가제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 워십페스티벌 열려

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강민석)가 주최한 워십페스티벌이 15일(일)과 21일(토), 그리고 22일(주일) 개최됐다. 22일(주일) 오후 6시 오렌지카운티제이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제23회 창작성가제가 열렸다.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후원

을 위해 마련된 이날 창작성가제는 최준우 목사(좋은비전교회 담임)의 시작기도와 한지현 작곡분과장 환영인사로 시작, 남가주살림교회 연합찬양대(담임 김준식 목사, 지휘 이규영), 보첼레스티 성인 합창단(지휘 안주영), 좋은비전찬양대(담임 최준

우 목사, 지휘 서건), 남가주경신코랄(단장 노용주, 지휘 장지영), 그랜드페스티벌라이어(단장 오은선, 지휘 강민석), 나성순복음교회에루살렘성가대(담임 진유철 목사, 지휘 이희성), 오렌지카운티코리언메스터코랄(단장 장경민, 지휘 강미영), 감사한인교회 사랑성가대(담임 구봉주 목사, 지휘 김명옥),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 지휘 제갈소망),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시온찬양대(담임 김종규 목사, 지휘 이은파)가 출연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참석자 모두가 연합으로 ‘은혜’를 부른 뒤 김종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오후 4시 ‘박지훈 지휘자 세미나’를 부에나파크 감사한인교회 베델룸에서 가졌으며 21일(토)은 오후 6시부터 제1회 골든에이지 찬양 페스티벌을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박준호 기자)



최석호 가주상원의원 후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최석호 가주상원의원 후원행사 열려

“캘리포니아와 한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길”

최석호 가주 37지구 상원의원 후보를 후원하는 행사가 23일(월) 정오에 LA 신복경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성수 전 LA 상공회의소 회장, 최라나 회장(정치신장 위원), 이상주(정치신장

위원/경희대), 지나킴(정치신장 위원), 정정숙 미주한인재단 LA부회장, 오성에 권사(남가주한인 음악가협회 이사장), 박우성 장로(경희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 팻부이 가든그로브 시장후보가 함께 했다. 최석호 후보는 “대학교 총장이 되는 꿈

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바인교육위원이라는 자리를 통해 정치인 최석호의 삶을 열어 주셨다”며 “지난 2022년 주하원선거에서 낙선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다. 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한표에 당락이 결정이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와 한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석호 후보는 가주 하원에 3번 당선되어 활동하는 동안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미국 내 김치 판매가 30% 이상 오르게 되었으며 유관순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등이 제정되는데 앞장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한편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후원행사는 송정명 목사, 미주한인재단LA부회장, 오성에 권사, 박성수 회장 등이 최석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격려사를 했다.

(박준호 기자)



세미나와 함께 간증을 전하고 있는 이훈구 장로

휴스턴한인중양장로교회, 자녀교육세미나

휴스턴한인장로교회(담임 이재호 목사)는 이훈구 장로(G2G 선교회 대표)를 초청, 자녀교육과 결혼에 관한 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이훈구 장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는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교육과 학업, 경제관,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 하며 자신의 간증도 들려주었다. 이 장로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선물은 세상적인

그 어느 것보다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라며 “자녀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공부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을 잘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의 경제관에 대해서도 자녀들 스스로 어릴 때부터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절약하고 저축하며 사용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휴스턴한인중양장로교회 웹에서 ‘자녀교육 간증 및 설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녀교육 세미나를 원하는 단체는 g2gmission@hotmail.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남가주밀알 이사진&스텝

남가주밀알선교단 신임 이사장 선임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지난 9월 19일(

목)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남가주밀알의 신임 이사장에는 이종열 장로(James Worldwide 대표)가 선임됐고, 부이사장은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교회담임목사, OC 교협회장)가 연임키로 했다. 이종열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남가주밀알 이사로서, 밀알의 밤 장학위원장으로 열심히 섬기며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 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공로가 컸으며, 심상은 부이사장 역시 사랑의캠프 등 밀알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몸소 참여하며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주관하는 ‘2024 밀알의 밤’이 오는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한국의 유명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공연 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림’을 메인 게스트로 초청하여 ANC 온누리교회(4일)와 감사한인교회(5일), 엘바인 온누리교회(6일)에서 ‘위로(이사야 40:1)’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하림의 아름답고 단순한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 한인교포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밀알의 밤을 준비하고 있다. 2024 밀알의 밤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 전액은 ‘2025 년도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사제공: 남가주밀알선교단)

설교자의 열정, 존 파이퍼...

(2면에서 계속)

성경에는 천둥처럼 울리는 영광스럽고 섬뜩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서는 기껏해야 미미한 두려움과 황홀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메가톤급 진리를 단지 그랩업 열정으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까요?

저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놀라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감이 휩싸이도록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제 비전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나, 그 순간이

나, 음악에 대한 감정은 아니지요. 참으로 객관적이고, 분명하며, 성경에 근거한 견고한 비전에 대한 감정입니다.

4. 상황에 맞는 열정을 개발하여 자기 목소리 찾기

이 표현은 이정규 목사의 소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는 파이퍼와 더불어 결혼한 설교자 팀 켈러의 열정을 비교한다. 켈러가 차분한 톤과 논리적인 논증으로 설교한 이유는 ‘뉴욕의 문화에 맞게 설교문을 상황화한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팀 켈러가 열정의 상황화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설교의 주제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받는 청중이 있었다

고 한다. 열정의 상황화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파이퍼와 켈러의 열정을 비교해서 누가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설교자의 개성과 기질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나는 나름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했다. 경상도 사투리에 신경을 쓴 탓도 있었고, 부교역자로서 튀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당시에 대구에 있던 한 후배에게 “목사님, 옛날의 열정이 다 식었네요.” 하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경남지역 교회의 담임목사로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차분한 것보다 힘 있고 열심을 내는 설교를 선호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묶어 두었던 기질적 열정이 분출하기 시작했

다. 파이퍼를 본받아 마음껏 해보았다. 나의 기질과 성격이 파이퍼와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아내가 ‘너무 열을 내지 말고,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해 보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내가 한 설교를 잘 듣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 몇 편을 들어 봤다. 설교할 때는 몰랐는데,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 보면서 어색한 톤, 부정확한 발음 그리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음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매우 부끄러워 더는 설교를 들을 수 없었다.

진리가 불러일으키는 열정을 개성과 기질을 살려 상황에 맞게 표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열을 올리고 쉽게 흥분을 하는 기질은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너무 차분한 성격은 반대로 열정을 드

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문화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부담되지 않으면서 어색하지 않은 자기만의 음색, 음량, 몸짓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파이퍼가 나를 만난다면 바이런 안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할 것이다.

“제발, 제발 존 파이퍼를 흉내 내지 마세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강인함과 열심과 열정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어요. 제가 하듯이, 두 팔을 흔들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지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만약 몸에 밴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온다면, 당신의 표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열을 올리고 쉽게 흥분을 하는 기질은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너무 차분한 성격은 반대로 열정을 드

by 배성현, TGC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2024 다민족 연합 기도회 성료

“미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자”

2024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Seek His Face'라는 주제로 2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기홍 목사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미국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며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미국이 세계 기독교와 경제를 이끌도록 축복하셨다.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이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군대를 파송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삼으



2024 다민족 연합 기도회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셨다. 이는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말했다

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다. 그럴 때 이 땅을 구해주시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미국이 다시 회복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영 목사 사회로 열린 기도회는 △회개, △부흥과 회복, △선교와 리더십, 그리고 △선교와 평화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담당자들이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 뒤 합심으로 기도 했다. △회개의 기도 담당 신승훈 목사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저지른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면 고쳐 주실 것이다.”라 말했다. 이어 심상은 목사가

“하나님을 떠난 죄” 길버트 자라고사 목사가 ‘총기, 마약, 낙태’, 이갑용 목사가 ‘역사 속의 죄’ 이원석 목사가 ‘인종증오, 인종차별’에 대해 회개기도를 했다. △부흥과 회복 담당자인 데이빗 디아즈 목사(뉴비기닝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어둠속에 포로 된 자들을 자유케하고 제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월마 배리 목사(아주사 스트리트미네스트리)가 부흥, 김철민 장로(CMF가정사역원)가 ‘가정회복’, 유수연 ABC교육위원이 ‘교육회복’, 장수영 목사(연약교회)가 ‘교회회복’에 대해 기도했다. △선교와 리더십 담당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지도자가 잘못 가면 집단은 망하게 된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뉴엘 산탈라노 목사가 ‘선거, 전영숙 전도사(감사하인교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오윤태 목사(순무브먼트)가 ‘입법부와 사법부’, 엘머 잭슨 목사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기도했다. △선교와 평화 담당 울프강 코바ček MPEG공동대표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샘한 목사(JAMA, GMI)가 ‘선교’, 조이스 정 이스라엘 선교사가 ‘전쟁종식과 이스라엘의 평화’, 루디 톨로왕이 ‘박해받는 나라들’, 무디고 목사(아버지참상교회)가 ‘흡리스선교’에 대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정치인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으며 GMI연합성가대의 할렐루야 합창이 있는 뒤 조지 푸엔테스 목사(Iglesia de Cristo Elim)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빛장로교회 사경회에서 송정명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빛장로교회 사경회, 강사 송정명 목사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되길”

한빛장로교회(담임 구경모 목사) 사경회가 ‘비전 153을 실현하라’라는 주제로 20일(금)부터 22일(주일)까지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구경모 목사 사회로 22일(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될 마지막 날 집회는 윌리엄 유집사가 기도했으며 한빛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가 ‘본이 되는 교회(살전 1:2-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49년 전 이곳에 한빛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교회가 153의 비전을 가지고 이해를 시작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바울사신이 13권인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은 데살로니가전서이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교회가 소문

이 좋게 나야 한다. 그래야 소문을 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엘몬테에 좋은 교회가 있다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여겨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둘째, 사랑의 수고 즉 헌신자가 많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 손님노릇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여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임하여 생명감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교회처럼 아름다운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KFAM 한인가정상담소 후원자 및 이사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제41회 연례기금모금행사 성공리에 마쳐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염)는 지난 19일(목) 오후 6시 조나단클럽(Jonathan Club)에서 제41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기금모금 행사명은 ‘가면을 내려놓다’ (Let Your Mask Down)라는 주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주제는 우리 이민사회가 겪고 있는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함께 나누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행사를 통해 후원자들의 현장 기부와 후원을 포함해 총 25만 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이는 KFAM을 지원하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KFAM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모든 후원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캐서린 염소장은 “KFAM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고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식이 산생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 위 네모안은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고인을 부양하고 유가족에게 인사하는 모습

고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예배

“미성대 초대학장, 지성적이며 영적인 지도자”

고 이정근 목사 장례예배가 21일(토) 오전 11시 30분 미주성결교회 교단장으로 엄수됐다. 토렌스에 있는 산생교회(윤석형 목사)에서 열린 장례예배엔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교회당 2층과 입구까지 조문객들로 넘쳐나 미주성결교단 뿐만 아니라 미주한인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의 생애를 추모했다.

김종호 목사(미주 성결교 목사 부총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백문철 장로(미주성결교 전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조승수 총회장의 ‘꿨을 수 없는 사랑(로마서 8:35-39)’이란 제목의 설교, 윤석형 목사(전 총회장)와 이상훈 목사(미성대 학교 총장), 그리고 고인의 장남 로이 이 목사의 추모사로 이어졌다. 윤석형 목사는 추모사에서 “고 이정근 목사님은 목회자요, 신학자요, 문필가로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아온 목회자였다. 그리고 늘 후배 목사님들을 사랑으로 지켜보며 격려해 오신 목사님이셨고, 지성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이셨다. 이 목사님의 수많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 목사는 “미성대학교의 기초를 닦아 초대 학장으로 사역하시며 학교 교훈을 ‘너 하나님의 사랑아!’라고 정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결의 사람, 전도의 사람을 배출하는데 헌신해 오셨다”고 말했다. 유이은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조가, 고인의 손주들이 조가를 불렀고 이유근 장로(고인의 동생)와 김시은 목사(교단 총무)의 인사와 광고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안디옥 침례교회 폴 김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하관예배는 구자인 목사(유이은교회)의 집례로 로즈힐스 메트로컬 팍에서 같은 날 오후 3시에 열렸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고인의 마지막 저서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조문객들에게 ‘말씀전과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전달했다. 고 이정근 목사는 1942년 4월3일 6남2녀 중 5남으로 출생했으며 2024년 9월1일 향년 8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가족으로 부인 박부강 사모와 1남 2녀가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2024 추계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2024 추계부흥성회를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라는 주제로 오는 10월3일(목)부터 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성회 강사는 김훈문 목사(부산포도원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3일(목) 오후 7시30분, 4일(금) 오전 5시 20분, 오후 7시30분, 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6일(주일) 주일예배(오전 7시20분, 9시10분, 11시20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446-1000

사랑의빛선교교회 2024 가을말씀부흥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2024 가을말씀부흥회를 ‘주가 나를 불드신다’라는 주제로 9월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부흥성회의 강사는 김지찬 교수(홍신대 구약학교수)이며 일정은 27일(금) 오후 7시45분, 28일(토) 오후 7시, 29일(주일) 1-3부 예배(오전 8시, 9시30분, 11시30분)이다.

▲ 문의: (626)744-9191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의 날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아름다운 동행 공개헌금의 날 행사를 10월 4일(금)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갖는다.

▲ 문의: (714)484-1190

오렌지한인교회 찬양부흥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찬양부흥회를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오니(겔 37:1-10)’라는 주제로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본교회 담임인 정유성 목사이며 일정은 27일(금) 오후 7시30분, 28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30분, 29일(주일) 1-3부예배(오전 8시, 9시30분, 11시)이다.

▲ 문의: (714)871-8320

재소자를 위한 오네시모선교회 후원 음악회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최준성 목사 후원회장: 한영숙 권사)를 후원하는 제21회 후원 음악회가 오는 9월 29일(주일) 오후 5시 나침반 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열린다.

▲ 문의: (714)739-9100



본지 기자 박준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이미 시작된 미래교회’ 주제 특강 실시

“사역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적 지도력”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음악학과(교수 윤임상 박사)는 17일(화) 오후 5시 본지 기자인 박준호(문화교류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이미 시작된 미래교회’라는 주제의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음악학과 석사과정의 ‘영성 지도력과 찬양사역’ 수업시간에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윤임상 교수는 “현재 WMU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대는 지금과 같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며, “오늘은 특별히 미래사회와 교회를 연구해오고 최근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책을 출판한 박준호 박사의 강의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호 박사는 “교회를 비롯한 사역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적 지도력이며 이는 사역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 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바랄 때 사역자들이 위축되어 있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행 중인 사회현상에 대해 ‘재사회화 현상’이라 칭하면서 통신기술의 발달과 저가대 위성, AI, 그리고 가상현실 등의 콘텐츠와 직업의 변화 등을 설명하며 “이미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사회에

(이성자 기자)



예장합동, 26년 만에 교인 수 최저... 1년새 10만여명 감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 산하 교회 교인 수가 1년 사이 10만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장합동은 24일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진행 중인 제109회 총회 총무 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인은 4.3%, 교회 수는 0.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교회는 1만920개에서 1만832개로 88개 감소했다. 반면 목사들과 장로 수는 각각 0.9%, 12.2%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교인 10만여명이 빠져나가면 1998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살롬부흥 전도 운동'을 통해 6만여명 교인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살롬부흥 운동은 지난 회기 총회에서 진행한 전도 전략 캠페인

로 1년 단기로 진행했다. 교단 내 전도를 주도하는 선봉교회를 지정하고 전도대상자와 교인을 묶어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식이었다. 인구감소와 사회 내 부정적 이미지에 따른 교회 이탈을 고려하더라도 교인 급감의 속도는 기존의 추세에서 벗어났다. 10만 명 감소 중 기존 신자의 감소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감소한 전체 교인 수 중 세계 교인이 5만2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도윤 예장합동 기획행정국 국장은 "지난해 6만여명 성도 증가는 1600여 개 교회에서 전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만14세 이상 세계 교인 수보다 자연 사망으로 인한 교인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합동 총회는 이단 동성애 문제 등 대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미흡했다"며 "교회가 다음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 굿피플 마라톤 대회에 4000명 참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기부 마라톤 대회 '2024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행

사에는 40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냉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열렸다. 한 국지역난방공사가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소셜 러닝 플랫폼 '러

너블'이 주관했다. 참가자들은 월드컵공원 산책로를 따라 5km, 10km 코스 중 본인이 원하는 코스를 달렸다. 배우 남보라와 치어리더 안지현 등 굿피플 나눔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이 참여했고, 마라톤이 끝난 뒤에는 가수 박현빈, 가수 경서의 특별 공연도 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모인 1억 6000만원의 참가비는 모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쓰인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 4000명의 히어로가 함께했다"며 "굿피플은 대회에서 모인 따뜻한 마음이 소외 이웃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 국내외 교회 돕는다... 일상 속 한걸음 한걸음 '기부 챌린지'

걸음 수가 측정되는 기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교회 문을 나선다. 주일인 22일 오후 공원을 지나 음식점 거리를 거쳐 전통시장을 통해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들어서도 4000보로 절반이 안 됐다. 버스 정류장 네 곳을 걸은 셈이지만 아직 절반전도 못 마쳤다. 또다시 앱을 켜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공원을 거쳐 호수까지 한 바퀴 돌자 비로소 1만보를 채웠다. 각자 좋아하는 장소를 걸으며 우리 주위의 다문화가족을 생각하는 기부 챌린지의 일환이다.

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WALK TOGETHER(워크 투게더)' 다문화가족축제를 진행 중이다. 22일 밝혔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일상의 걸음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자'는 모토 아래 기부 플랫폼 체리 앱과 함께 걷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앱을 내려 받은 뒤 챌린지 참여를 눌러 곧바로 1만보 걷기에 참여하면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운 손길이 선순환을 이루며 나눔의 씨앗을 옮긴 과정을 생각한다.

는 추가 후원으로 일주일 식비 3만원, 공과금 지원 5만원, 병원비 부담 10만원을 도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은 내팔 은혜교회, 베트남인 교회, 영월한 찬양 몽골 교회, 탈북민들이 모인 여명교회, 필리핀인들의 열방교회 등 교회와 기관 9곳의 다문화가족들에게 전달된다.

월드휴먼브리지는 2012년부터 다문화 걷기 축제를 이어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부터 온라인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따로 또 같이' 진행되는 '랜선 걷기'를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축제도 예정돼 있다. 다음달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인근에서 세계음식, 베품시장, 다문화 체험부스, 키즈존 등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부스가 설치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도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어린이들이 많다"면서 "1만원의 참가비만으로도 이들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서 안정된 일상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꾸준히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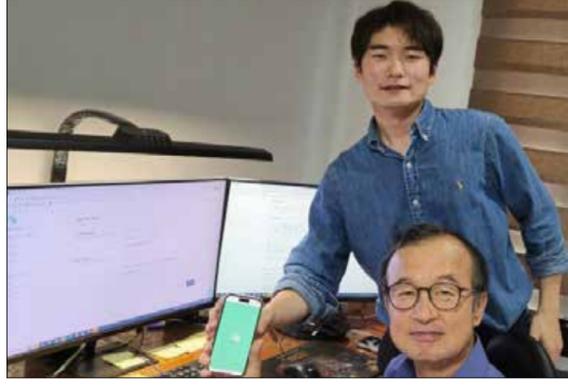


한국은 LGBTQ 포용추세? 서구권 발지취 따르나... "교계, 적극 대응해야"

우리 국민들은 한국 사회가 LGBTQ(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성혁명(성오염)으로 무너지고 있는 서구 문화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 성소수자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의적(긍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사람은 1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7일~7월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6%포인트 감소한 반면 호의적인 사람은 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관대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가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2년(50%), 2023년(52%)과 비교할 때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회는 23일 "서구권은 현재 과도한 PC주의(정치적 올바름)로 무너져가는 추세"라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이어지는 등 영향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교회가 사명감으로 10·27 연합예배 등에 참여해 성혁명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교회만의 모바일 커뮤니티, '치움' 서비스 개시

주요 심방 소모임 온라인현금 등 기능 무료 제공

교회를 위한 폐쇄형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개발됐다. 기독교 커뮤니티 '치움'은 교회 일정 관리를 비롯해 주보 심방 소모임 온라인현금 등의 기능을 개교회별로 무료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다. 지난 6월 출시한 앱을 사용 중인 교회는 대전 새소망교회(황인준 목사) 경남 양산 큰사망교회(조현목 목사) 등 현재 200여곳에 달한다. 황원덕 치움 대표는 22일 통화에서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공지나 주보를 효율적으로 방법이 부족했다. 소모임이나 심방 일정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문제를 겪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에 익숙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며 "사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5060 사용자"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한국교회가 치움을 통해 세대간 소통을 늘리고 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출석 교회 교인들만 모인 모바일 공간에서 교인들이 서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소통이 일상인 된 현대 사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Table with 2 columns: Description and Amount. Includes 'Total Paid Distribution' and 'Total Free or Nominal Rate Distribution'.

투잡이 아니라 "목회" 다 카페사장 개척교회 목사가 전한 이중직 목회

'세움소 교회 주일예배 대관 일'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경기도 부천 한 카페 앞에 세워져 있었다. 22일 '세움소 카페' 간판이 붙어 있는 이곳에서 이중직 목회를 하는 권현철(43)목사를 만났다. 권 목사는 2년 전 예배당 마련을 위해 세움소 카페를 시작했다. 그와 아내인 김미선(39) 사모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5개월 동안 권 목사 식구 네 명이 드리던 세움소 교회 예배는 현재 50명이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세움소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권 목사가 마주한 문제는 '주변의 시선'과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었다. 이는 이중직 목회를 고민하는 다수의 목사가 갖는 고민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경기도 고양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주최로 열린 '사회적목회 콘퍼런스'에서 나온 목회자 대부분의 고민은 '정체성 혼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적목회는 이중직 목회의 다른 표현이다. 권 목사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 목회 선배들로부터 목사가 세상의 일로 돈 버는 것이 맞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며 "세상일을 한다는 이중직 목회 우려에 스스로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성도를 목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목사 직무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어떤 일로 부르셔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카페 운영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회와 카페 재정을 온전히 분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교회는 주일마다 카페에 대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세움소 교회를 통해 교회를 처음 접한 사람이 3명 중 1명

풀이며 나머지 교인 대부분이 가나안 성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나안 성도였던 김민지(35) 집사는 "기도가 필요했던 시기에 집과 가까운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집사가 기독교에 부정적이었던 남편 이연규(34) 집사를 전도하게 된 것은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 덕이었다. 세움소 교회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이 집사는 이 집사는 "카페에서 목사님과 친밀감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허물어졌다"며 "교회를 경험하게 됐고 예배가 주는 평안함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선교의 창 (24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변하는 세상에 따른 선교 추이(推移)와 대책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은 매년 7월 11일이다. 이는 UN 산하의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이 날짜는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한다. 최근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 인구는 (현재) 82억 명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103억 명까지 늘어났다. 208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증감의 실태

하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세계 선교의 추이를 돌아보며 미래의 선교 방향을 모색해보자.

세계인의 종교 현황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이다. 그중 기독교인은 32%인 약 26억 명이다. 이 수치는 가톨릭(13억 명), 회림교(3억 명), 개신교 (10억 명)를 포함한 것이다. 이슬람교도들은 24%인 20억 명이다. 힌두교인은

계 기독교 인구는 1900년 34.5%에서 2010년 32.9%로 줄었다. 반면 이슬람 인구는 1900년 12.3%에서 2010년 22.5%로 증가했다. 인구 증가와 이슬람의 성장에 비하면 기독교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 선교의 추이(推移)와 한계

근대 개신교의 선교역사는 1792년 해안선교시대를 창안한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

한체 치하에서는 민족독립 운동에 앞장서면서 중국 산둥반도에 선교사를 보냈다.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한 후 자신감을 바탕으로 1989년 해외 여행 자유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후 한인 세계선교는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처럼 근대 이후 선교패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향식이었다. 문화와 경제적 힘을 이용해 선교사를 타 문화권으로 파송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이제 서방교회가 쇠락함으로 선교의 힘이 급속히 빠지고 있다. 결국,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은 국가가 힘이 있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효력을 발휘하나 그렇지 못할 때는 선교도 한계성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립적 전문인 선교와 한계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모델은 사도바울이 창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목회자보다는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IT,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 저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전문인들을 환영한다. 더구나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전문인 신분이 아니고서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하기엔 통제나 관리가 어렵다. 자비량 전문인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바른 인식과 더불어 선교 신학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을 잘 훈련하여 목회자 선교사처럼 동등한 자격으로 파송하고 현지에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조직 안에서 팀워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전후방이 없는 총체적 선교 동원

거친 세상, 급변하는 세대에 어떻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첫째 단기 선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금 실태는 여름철에 청년들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어 1, 2주 다녀오고 있다. 이러한 사역 패턴은 현지 선교사에겐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저들은 봉사 겸 여행 등 다 목적으로 오기 때문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선교여행(Vision Trip or Mission Trip)이다. 단기 선교(Short Term Mission)란 적은 숫자 가능한 한, 두 사람이 오로지 사역만을 목적으로 1달 이상 2년 미만 선교지에 가 동역하는 것이다. 이는 인턴십(Internship) 선교라고 말할 수

단을 포함 불신자들은 약 56억 명이다. 이는 모든 한인 크리스천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해도 한 사람의 560명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다 해도 각 처소에서 선교적으로 살 수는 있다.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주님 나라와 의를 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일상에서 성령을 의지해 사역 적으로 사는 것이다.

맺는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딤후 2:4)과 모든 민족(마 24:14)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교회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상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대비 복음화 비율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면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선교 사명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교는 특정 선교사와 특정 교회라는 소수에 국한되었다. 80% 다수의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망보다는 오로지 교회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선교는 우리가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비롯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걸었다. 선교완성은 모든 이가 모든 곳에서 연합적 대오를 형성할 때 가능하다.

는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감소하나 아세아,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증가 추세이다. 우리의 관심 분야는 북음화율이다. 세계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인구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쇠락은 선교의 전망을 어렵게 한다. 속담에 "숨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다"라고 했다. 세상이 어지럽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14%인 11억 명이다. 불교도들은 6%인 5억 명이다. 기타 군소 종교인들을 합산하면 12%인 10억 명이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약 12%인 10억 명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슬람의 성장세이다. 기독교 컨설팅 업체인 "프로젝트 케어"의 디크 슬리커(Dick Slikker)는 1900년부터 2010년까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수를 조사, 비교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슷했으나 무슬림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아가 전 세

다. 그 후 19세기까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이 힘을 바탕으로 여러 유럽교회들과 함께 선교를 주도했다. 그러나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피폐하였고 교회도 힘을 잃었다. 더욱이 그간 식민지로서 존재했던 아프리카와 아세아의 여러 국가가 독립함으로써 이전처럼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자연히 20세기는 미국이 유럽의 선교 바톤을 이어받아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1885년까지 개신교지였던 조선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였다.

흐름의 일환으로 Business For Mission이 나왔다. 어떤 이는 Business And Mission을 한다. 이제는 Business As Mission로서 BAM Movement가 일어나고 있다. 아무튼, 자비량 전문인 선교는 오늘날 또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누구나 쉽게 나갈 수 있으며 신분이나 재정적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사역적 전문성을 가진 직업 선교사는 대부분 직업적 전문성이 약하고, 선교가 된 직업인이 사역적 전문성이 약하다. 특히 이 부류는 기관보다 독립적인 활동을 주로

있다. 둘째로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적으로 성격변화를 하는 것이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구촌에 약 3억의 디아스포라 인이 있다고 한다. 디아스포라 한인은 2023 기준 181개국에 7,081,510명(재외 동포청 자료)이다. 현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약4,500개 정도이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어디를 가나 영성과 열심과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Missional Church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로 1,000만 한인 성도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

이제 종말론적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결단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든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 헌신하든지? 만일 후자라면 교회는 선교적으로 Paradigm Shift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주님 몸 된 교회가 선교적 맛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적으로 동원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학)

35강 한나, 사무엘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으로 사사기에서 보여 줄 것은 다 보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 징계를 받았고, 징계를 받으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임시로 보낸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블레셋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 오 히려 그들은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사사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습니다(삿 15:9-13). 이제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주 잘 조합된 '가나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누리며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사무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대상 6:33,34)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 에브라임 사람으로 불려졌고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삼상 1:1,2). 성경은 지금 사사기에서부터 계속 '에브라임 사람'과 '에브라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전쟁 때도 입대의 전쟁 때로 자신들을 과시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 미가의 이야기기도, 레위인의 첩 사건도 모두 에브라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호 11:8). 그러므로 지금 시작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이야기기도 역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의 아내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고(삼상 1:2)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

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삼상 1:5)라고 합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자식들이 있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는데(삼상 1:5,8) 이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삼상 1:6,7).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식이 없었던 라헬과 자식들을 낳고서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이야기가 연상되는 상황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여자로서 임신하지 못하는 현실적 고통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헬과 같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인 엘가나에게 주어 '대리 자식'이라고 친정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느냐? 등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는

말씀대로 그때가 법도 기준도 없는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나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들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녀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나실임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삼상 1:10,11). 제사장 엘리가 이를 보고 취한 줄로 알았다가 마침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17)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임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삼상 1:18)고 합니다. 제사장임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던 엘리였지만 한나는 그의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

다.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복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삼상 1:19,20) 한나는 자신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삼상 2:21-28).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첫 선지자 사무엘, 성경에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또 제사장으로서 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고 가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님니다. 뜻을 떼기까지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키운 생명과 같은 아이를 젖을 떼고 드린 것입니다(삼상 1:24).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무엘을 죽음의 자리와 같은 자리, 부모를 떠나

혼자 자라야 하는 자리에 자신이 한 서원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또한 한나는 원래 임신이 어려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평생 자식이 없이 다시 브닌나의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서원을 지키고 후에 더 많은 자식들을 낳습니다(삼상 2:21). 한나의 찬양에는 '여호와와 죽이 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 2:6,7)라고 고백하여 욕의 기도를(욥 1:21, 2:10) 연상케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아들이 된 자에게 입하신 영광의 실상을 보라 (막 9:2,3) 찬 487장**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빛이다. 광채가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참 빛이 오신 것이라고 하셨다. 거룩한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어둠이요 사람은 어둠에서 산다고 하셨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모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

님 아버지는 아들이 되는 나에게 거룩한 빛을 입하신 것을 알고 그 실상을 보고 누리야 한다.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입고 누리고 살아라. 어둠의 생각들이 나타나면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하라. 그러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간다. 구원 받은 자에게 입하신 영원한 거룩한 빛임을 알고 누리라. 빛의 권세를 누리라.

화 **악한 영이 내게도 시험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막 9:17-26) 찬 400장**

귀신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죽이려고 불과 물에 들어가게 한다.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한다. 오늘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악한 영이 얼마든지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죄에 빠지게 하며 죄의 충동을 일으켜 그 생각으로 마음을 고통하게 하고 또한 이웃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또한 죽이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

킨다. 이러한 것이 사단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나에게도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같이 당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생각이 마음에 누룩과 같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품지 않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여 악한 생각이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하라 (막 9:34,35) 찬 212장**

육신의 마음에는 자신을 항상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자신이 낮아 졌을 경우에는 매우 마음이 상하여진다. 이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고 대접 받고자 한다. 죄의 성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한 훈련은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앞이 아니니까 내가 교만하여 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나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앞에 없는 것의 증거다.

목 **죄인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막 10:17-27) 찬 289장**

죄인은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을 곳으로 가서 산다. 이러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을 정하시고 심판을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받을 법을 정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죄인들이 받게 되

는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살아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와와 관계에서 주인으로 계시면 주인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다. 다른 열쇠는 없다. (요3:16,17, 살전5:9, 딤펴전 1:5)

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한다. (막 10:32-41) 찬 200장**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속죄 제물로 드림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차지하여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이 높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만 항상 마음에 사망의 생각들로 굳어지

지 않도록 마음을 살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육신의 생각은 죄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망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습관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말씀의 생각이 마음에 풍성하면 사망의 생각들이 쉽게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 못한다.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

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신다. (막 10:46-52) 찬 214장**

주님은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매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신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지 바디매오를 부르신다. 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외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즉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주신 대로 고백한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 사망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라.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외치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입으로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육신에서 주는 생각들을 입으로 시인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마음에 빛과 같이 나타나는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다.

교회음악 이야기(65)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을 중심으로” IV

이처럼 라틴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동기로 만들어진 레퀴엠은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주용 예술 음악이다. 이 장르는 시대별로 뛰어난 작곡자들이 그 시대에 나타난 예술적 가치와 기술들을 접목해 합창음악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서양음악사에 있어 합창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좋은 유산을 잘 전수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텍스트 적인 면에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나약함과 여러 석임을 토로하며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이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한 기도,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을 그리는 가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애도하고 추모하며 드리려는 의도로 이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옷매무시를 정돈하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음악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르침에 있는 것이다.

2.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Johannes Brahms, 1833-1897, Ein Deutsches Requiem, Op 40)

브람스의 삶

브람스는 1833년 독일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Hamburg)에서 아버지 요한 제이콥 브람스(Johann Jakob Brahm, 1806-1872)와 어머니 크리스티나 브람스(johanna Henrika Christiana Nissen Brahms(1789-1865) 사이에서 태어났다. 더블베이스 주자인 아버지의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루터란 교회 신자인 부모의 신앙으로 유년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브람스였지만 생활은 늘 가난으로 찌들어 살았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신앙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그는 전 생애 동안 루터란 성경을 늘 곁에 두고 탐독하였다고 한다. 후에 브람스가 성악곡을 작곡하면서 성경에서 가사들을 발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나이 20세 때 음악 인생에 큰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맞았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였던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 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을 만나게 되었다.

브람스가 19살에 썼던 자신의 곡 C Major Sonata를 슈만에게 들려주자 크게 감동한 슈만이 자신이 발행하고 있는 음악 간행물 “Die Neue Zeitschrift Fur Musik”에 “Neue Bahnen,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브람스를 극찬하며 천재음악가의 출현을 소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브람스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이후 슈만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후 슈만의 갑작스러운 정신병, 자살, 병원 입원,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때의 모든 뒷바라지를 브람스가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슈만의 아내 클라라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다.

작곡 동기 및 특징

1865년 2월 2일, 브람스는 동생 프리츠로부터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즉시 오세요”라는 긴급 전보를 받았다. 76세의 어머니 크리스티나 브람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다. 브람스는 비엔나에서 서둘러 어머니를 찾았지만,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크리스티나 브람스의 삶은 쉽지 않았다. 12살에 재봉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녀는 41살에야 브람스의 아버지 요한 제이콥(17살 후배인 가난한 음악가)과 결혼했다. 34년 후 결혼 생활은 악화되었고 남편은 1864년 그녀를 떠났다. 부모님을 모두 사랑했던 브람스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실감은 작곡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어머니의 죽음이, 이 작품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9년 전 그의 스승인 슈만이 사망한 후인 1857년 시작되었다. 이후 1867년 세곡(1-3번)을 가지고 초연을 하였고, 이듬해에 여섯 곡(5번 제)으로 연주한 이후 1869년에 5편을 더하여 총 7곡의 완성된 곡을 가지고 초연을 하게 되었다.

브람스는 그동안의 레퀴엠 장르의 관행을 깨뜨리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레퀴엠 장르를 확립하여 개신교(Protestant)의 레퀴엠이라는 타이틀을 한 유일한 작곡가이다. 이것이 개신교 레퀴엠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모든 관습적인 규칙을 제쳐두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슬픔과 희망에 대한 심오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진술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사용하는 텍스트는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하였는데 브람스는 라틴어가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며, 이는 청중에게 더 이상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레퀴엠의 전통적인 단어를 버림으로써 교리나 교과의 문제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장조의 틀을 넓혔다. 그래서 브람스 자신이 직접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한 새로운 텍스트를 대입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의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슬픔, 희망의 문제에 대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To be continued.

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93.부부싸움의 원인과 해결방안

부부란 서로 다른 인격, 환경, 생활, 문화, 교육, 종교 등을 가진 남남이 결혼이란 제도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오해와 갈등, 다툼과 싸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부부는 평생 싸움 한번 한적이 없어...”하는 말을 듣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매우 행복한 부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개성이 없고, 삶의 활기나 매력도 없는 생활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부부가 꼭 다투고 싸워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별 다툼이나 싸움이 없으나 속에는 큰 싸움이 담겨 있고, 또 단번에 해결되는 충돌이 있느냐 하면, 습관성으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세의 다툼과 싸움도 있습니다.

1. 주체성 확립입니다.

셀링은, “아버지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답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되고 아내 되기는 쉬우나 각각의 주체성을 갖고, 남편답게, 그리고 아내답게 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변명 삼고 주체성을 포기하면 싸움의 해결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주체성은 남자와 여자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순서와 질서와 위치와 역할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부부간의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상호 간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결혼이란 길고 긴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생기는 크고 작은 충돌의 위

험과 어려운 점은 서로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려면 우선 대화가 되는 일인데, 대화는 누구의 감정표현이나, 누가 소리를 높여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를 조용히 질서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를 이해하라고 강조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만 하거나, 또는 긍정적으로나 혹은 부정적으로 듣고 말하도록 하는 강요가 아니고, 서로가 솔직히 말하고 또 듣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의 해결을 위한 7가지 대화법

(1) 문제가 되는 주제만을 다루어야 하며, (2) 이것저것을 들추지 말고 현재의 내용만 말하며, (3) 부부간의 일과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시키지 말며, (4) 부부간의 다툼과 싸움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며, (5) 대화 중에 피차 인격모독을 절대로 피해야 하며, (6) 이성을 잃은 언행 상태를 피해야 하며, (7) 대화의 끝맺음을 인내함으로 잘해서 문제의 해결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여러 방법대로 대화가 잘 안되는 부부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부는 싸움의 해결이 없어 소리만 높아지고, 각자가 고집스러우며, 결국은 불행한 결과뿐입니다.

3. 서로 적응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고하고 구혼을 할 때는 불철과 같은데, 결혼한 후 얼마 있으면 겨울철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부부간에도 늘 좋거나, 늘 나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싸움이 없이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려면 행복을 상대에게서 기대하거나 추구함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즉 상대편의 좋은 점에 나를 적응시키면서, 동시에 상대의 좋은 것을 내게 적응시키는 일입니다.

4. 서로 인내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의 다툼과 싸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말과 행동에 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과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수양, 그리고 좋은 신앙을 통해 참는 사람이 됩니다. 참는다는 말은 절제하는 뜻이며 또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마주보는 사랑이 있으면서 동시에 참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야 하는 협력자요, 보호자요, 또한 동반자입니다. 어려워도 돌이 참으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싸움은 없어집니다.

5. 서로 믿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아내가 남편을 왕 같이 대하면 그는 여왕처럼 대접을 받고, 남편을 종같이 대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라 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뜻은 서로가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가 없는 부부 사이는 각자의 주체성이 손실되고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간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믿는 신뢰가 꼭 필요합니다.

6.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를 향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게 되는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의 길에서 잘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벤 프랭클린은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이 없어도 사랑은 있다”라는 뜻있는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없이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모양만으로 보일 것입니다. 결혼의 조건이나, 내용이나,

7.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다양각색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그 정도,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 같으나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중의 하나만을 지적한다면 믿음이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믿는 신자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성이 곧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깨끗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신앙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요, 동반자요, 서로 돕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과 교육과 신앙과 삶의 환경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신비에 이르렀고, 각자의 주체성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고, 참고, 믿고, 의지하면서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갈 때,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정의가 많이 있겠으나 만일 남편과 아내에게서 두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할 사랑을 빼버린다면 진정한 부부는 아니고 다만 동거하는 어떤 조건일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해도 그들에게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이 살아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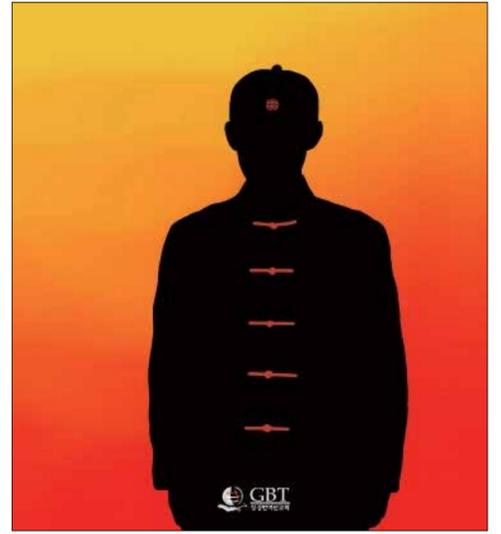
7.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다양각색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과 그 정도,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 같으나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중의 하나만을 지적한다면 믿음이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즉 믿는 신자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성이 곧 신앙입니다. 그 다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깨끗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신앙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요, 동반자요, 서로 돕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과 교육과 신앙과 삶의 환경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신비에 이르렀고, 각자의 주체성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적응하고, 참고, 믿고, 의지하면서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갈 때, 어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그로마 종족

▲ 인구 약 26,800명

▲ 종교 불교 99%, 무교 1%,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 프로파일 그로마족은 티베트와 부탄, 인도의 접경 지역에 산다. 중국 지도자들은 티베트족으로 분류하지만 티베트족과는 구별되는 다른 종족으로 문화도 다르다. 티베트 불교의 강한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 알려진 신자는 없다. 그로마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북쪽은 접근하기 어렵다. 이웃인 인도의 시킴주에는 250개의 네 팔 교회가 있다.

▲ 기도제목

1. 티베트 불교에 억눌려 있는 그로마족에게 거부감이 적은 시킴주의 네 팔 교회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2.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3.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새로 신설된 학위과정

Ph.D. in Financial Economic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BA)
Master of Fine Art (MFA) / Doctor of Fine Art (DFA)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신앙 에세이



류응열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가을에 하고 싶은 세 가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햇살도 다가오는 가을 앞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생명은 봄에만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생명탄생의 시작을 알린다면 가을은 생명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늘이 높아가는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의 생애 길이 남는 가을 맞이할 위해 세 가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을에 깊은 생각으로 물들어 있는 알찬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을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깊은 사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존재, 의미, 가치, 방향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봄으로 창조의 영광에 감탄하고 인간의 고귀함에 기뻐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생각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깊은 사고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분주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고는

자신과 세상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가을에 좋은 책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가을은 책 읽기에 최고의 계절입니다. 책은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류의 보고를 담은 것은 금광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담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책입니다. 책은 읽어야 가치를 줍니다. 도서관에 진열된 만 권의 책보다 손에 든 한 권의 책이 더 유익합니다. 가장 좋은 책은 하늘의 소리를 담은 성경입니다. 모든 책이 사람

을 지혜롭게 한다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리딩하는 사람이 리드한다는 말을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가을에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내려놓고 책을 곁에 두고 차 한잔과 함께 깊은 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숲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가을날 물들어 가는 산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숲길에 내린 낙엽은 밝힐 때마다 생각의 샘을 자극하고 남녘으로 날아가는 새들은 자신의 급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

을 하늘은 최고의 선생입니다. 티끌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신 앞에서 있는 자신을 보는 듯 합니다. 가을 밤을 비추는 밝은 달과 무수한 별은 영원한 세계 앞에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가을은 차 마시기 좋은 계절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좋은 날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에 최고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 자연, 사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깊이 채우는 날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preachchrist@kcpc.org

베드로 진서 30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황당한 일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온 나도 이런 황당한 일을 봤으니. 목사님들과 점심 후 커피를 마시러 가는 데 그리 복잡하지 않은 4차선 길이였다. 내가 가는 차도에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니 바로 나의 앞차가 정차하고 나 역시 설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차도에 있을 때는 뿔가 떨어진 것을 줍거나 길을 건너기 위해서일 텐데 그녀는 자동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마약? 술? 정신병?

그때부터 앞차와 여인 간에 실망이가 벌어졌다. 창문이 닫혀 말이 들리지는 않았으나 손짓을 보니 운전자는 팔을 내밀며 오른쪽에 인도가 있는데 왜 차도로 건너나 하고 말하는 것 같았고 여인은 자신의 오른쪽을 가리키며 옆에 다른 추월선으로 가면 되지 왜 이래라저래라 하나며 손가락을 내밀면서 욕을 하고... 나는 차가 더 밀리기 전에 빠져나왔기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

황당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도가 있음에도 걸지 말아야 할 차도를 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어 그 길로 걸어가야 함에도 걸지 말아야 할 죄의 차도를 걷고 있고 그러다 문제에 부딪치면 하나님께 큰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 여인을 황당하다고 말하기 전 죄짓는 인생 특히 성도들이 더 황당한 것 아닌가? revpeterk@hotmail.com

새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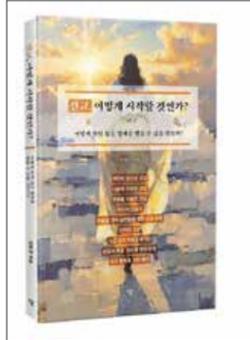


김동찬 박사

선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를 거쳐, 하와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NASA제트 추진연구소, 서울대학교 초빙 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전파연구원(National Radio Astronomy Observatory)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찬 박사가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선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출간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교의 사례, 선교 기관, 선교 교육기관, 선교방법들을 소개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어린이 선교를 잘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다문화 이주민 선교'에 관하여 "다문화 이주는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수록했다. 총 9장으로 나뉘어 구성된 본서는 제 1장 어린이 청소년 선교 - '국내 어린이 전도사례', '해외 어린이 전도사례', '청소년 전도법', '어린이 전도 교육기관과 자료', 제 2장 다문화 이주민 선교 - '한국의국인선교회', '남부전원교회', '오륜교회', '온누리교회', '나선공동체', '광주 고려인마을 전도를 위한 제안', 제 3장 한

류를 이용한 선교 - '한글학교 사역', '태권도를 이용한 선교 사역', 제 4장 시니어선교사, 제 5장, 무슬림, 힌두교인에 대한 선교사례 제 6장 인터넷 선교, 제 7장 자립선교 직업 교육기관, 제 8장 선교사 후원기관 및 후원단체 제 9장 선교활동을 위한 제안까지 각 장마다 알기 쉽고, 상세하게 수록했다. 저자는 "선교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하며 "구원받아 복음에 빛진 자들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주님이 명한

일이고 영원히 누릴 복을 하늘나라에 쌓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전도나 선교에 참여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역할지 몰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썼으며 선교훈련기관, 선교 후원기관, 자립선교 교육기관도 소개해 미니 선교 핸드북의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출간 목적을 말했다. 저자와의 연락은 dckim.uva@g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Includes doctor's name, clinic name, services list (e.g., Endoscopy, Ulcer treatment), and contact information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Features a family photo and a medical illustration of a stomach.